



베트남은 한류를 빠르게 흡수하고 즐기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. 이는 지리적, 문화적 근접성 덕분에 가족애에 초점을 맞추고 전통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개념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.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에서 한류는 K-pop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쉽게 받아들여지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. 이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센터(KOCCA VIETNAM)는 ‘2022년 베트남 한류 선호도 및 트렌드’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.

KOCCA 베트남은 베트남 산업 연구 및 컨설팅 회사인 VIRAC과 협력하여 전국 여러 지역의 6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. 특히 하노이(440개 표본)와 호치민(105개 표본)은 2022년 5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두 도시이다.

먼저, 코로나19 상황의 베트남에서 한류 현황을 조사한 질문에 응답

자의 70%가 한류 개념이 낯설지 않고 다가갔다고 응답했다. 즉, 한류하면 대부분 한국 TV 프로그램(80% 이상), 게임(거의 70%), 음악(K-Pop, 68%), 캐릭터(65%), 애니메이션(58%), 한국 뷰티(K-Beauty, 46%) 등의 순으로 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.

장르별로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, 우선 한류 핵심 분야인 한국 음악(K-Pop)의 경우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그룹은 BIGBANG과 BLACKPINK로 나타났고, 가장 유명한 남녀 솔로 K-Pop 가수는 지드래곤과 리사로 응답했다.

음악 애플리케이션은 유료 음악 애플리케이션이지만 한국 음악 제품을 가장 많이 듣는 매체로 스포티파이(Spotify)가 45.8%의 비율로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, 스포티파이는 사용자 경험을 충족할 수 있는 많은 고유한 기능을 갖춘 양질의 글로벌 음악 청취 플랫폼으로 평가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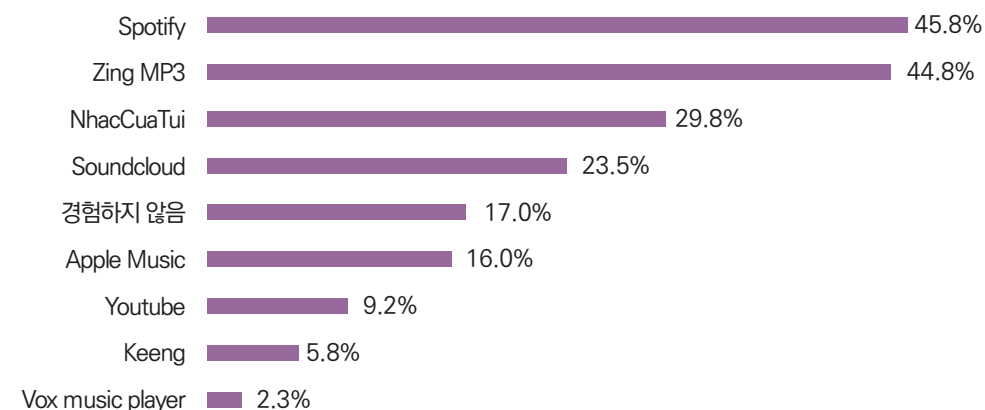
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센터의 ‘2022 한류 보고서’

“2022 한류, 코로나 한가운에서 안정 유지”

K-Pop은 BIGBANG과 BLACKPINK, TV 프로그램은 런닝맨(7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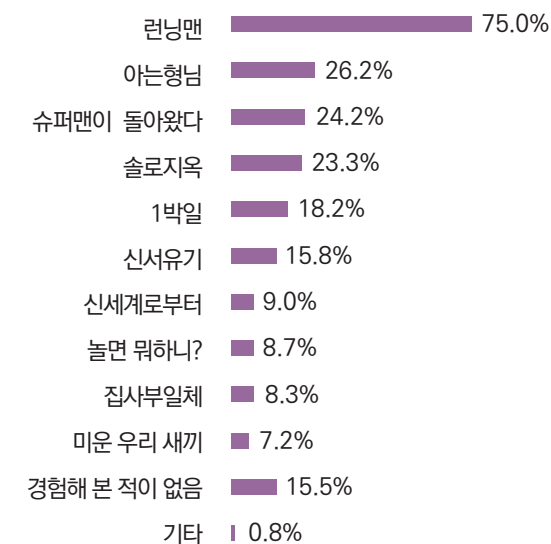


K팝스트리밍 채널



한국 TV 프로그램의 경우 역시 베트남 한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,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은 베트남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. 특히 런닝맨(75%)은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이었고, 그 뒤를 ‘아는 형님’과 ‘슈퍼맨이 돌아왔다’가 각각 26.2%, 24.2%로 나타났다.

인기 한국 예능 프로그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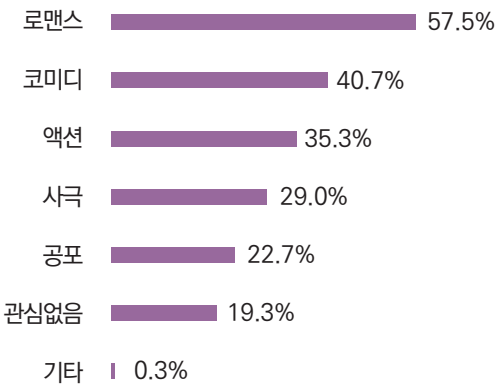


2022년은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의 성공적인 해로 알려져 있고 높 이 평가되는 영화가 많은데, 특히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0% 미만에 불과하다. 가장 많이 본 한국 영화 목록 1위는 넷 플릭스 영화 플랫폼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으로 응답자의 59.5%가 영 화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, 두 번째로는 ‘우리 모두는 죽었다’로 응답자의 45.9%가 시청했다고 응답했다.

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로맨스 드라마는 베트남에서 가장 인 기 있는 한국 영화/TV 장르로, 57.5%(345/600)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, 코미디 영화가 40.7%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. 다만, 한국 영 화에 대한 남녀의 선호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는데, 이민호와 손 예진은 각각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녀 배우로 나타났다.



한국 드라마 인기 장르



드라마/영화, 음악 이외에 한국의 게임도 베트남 시장 에서 점차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약 70%의 응답자가 한국 게임을 알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. 특히 PUBG(Playerunknown's Battlegrounds)는 46.5%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다.



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만화, 캐릭터 등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. 그러나 이 장르는 향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된다.

KOCCA 베트남 홍정용 대표는 ‘베트남 내 한류동향 변 화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지속해 오고 있으며 매년 조사결과를 누적관리하며 추이 변화를 한국콘텐츠 관 련 기관/기업에 적시 알려줌으로써 베트남과의 한류 콘텐츠 교류, 협력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, 이를 통해 베트남 한류의 재점화를 통한 동남아시 아 한류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. / 자료제공· KOCCA 베트남 ㉔

